

# 장백산천지

제 84 호

2008년 5월 9일

금요일

## 중공은 왜 《9평》을 감히 응대 못하는가? (현재 2)



《9 평공산당》의 《제 7 평》에서, 중공은 토지개혁、진 반、3 반、5 반、대약진、인민공사、문화대혁명、6.4 운동、파룬궁탄압 등 일련의 정치운동을 일으켜 무고한 민중을 살해한 죄증을 폭로했다. “중국공산당이 발표한데 의하면, 1952년 말까지 소멸한 ‘반혁명 분자’ 2 백 4 십 만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살해당한 인원은, 국민당 현장(縣長)이하 지방 갑장(甲長) 등 공무원 및 지주를 포함하여 최소한 5 백만 명 이상이다. …… 1984년 5월 중국 공산당

중앙이 2년 7개월간의 전면적인 조사와 사실 확인 및 새로 통계한 데 따르면 문화대혁명 당시에 172만 8천여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고, 13만 5천여 명이 현행 반혁명 죄로 사형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무장투쟁에서 23만 7천여 명이 사망했다. …… 강택민은 1999년 7월 20일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였다. 2002년 년말 대륙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7천여 명이 각지 구류소, 로교소, 감옥과 정신병원에서 참혹하게 치사 당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7명의 수련생을 학살한셈이다. …… 1949년 이후 중국에서는 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받아 대략 6천만에서 8천만명의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하였다. 이것은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사망자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제9평》의 중공의 위장에 대한 평론중에서 한 단락만 발췌한다. “중국 공산당 《헌법》 제35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민공화국 국민(公民)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중국 공산당이 즐기는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수천만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신앙, 언론, 출판, 집회의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그들은 어떠한 변호권도 없으며 청원 마저도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2004년 이후 일부 청원단체들이 여러 차례 북경에서 집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신청한 사람을 체포하였다.”

《제 9 평》 결론부분에서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만약 중국 민족의 도덕이 다시 세워지지 않고, 사람과 자연 및 천지의 관계를 다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신앙과 문화가 없다면, 중국 민족에게는, 결코 찬란한 래일이 없을 것이다. …… 생명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주입한 일체 사설(邪說)을 깨끗이 제거하고, 온갖 사악 《十惡》을 두루 구비한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똑바로 보며, 사람의 본성과 량심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평탄하게 공산당이 없는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자, 꼭 필요한 첫걸음이다.”

위에서 읽어보다싶이 이러한 확실한 사실과 명철한 론리앞에서 중공은 어찌 감히 《9평》을 반박할수 있겠는가? 중공은 한마디도 응대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되었다.

(끝)

세계 각지 파룬궁학원들

## 《4.25》 9주년을 기념

1999년에 북경에서 발생한 파룬궁학원들의 《4.25》 평화상방 9주년을 기념하여 세계각지 파룬궁학원들이 집회를 열고 시위행진하면서 중공의 파룬궁학원에 대한 박해를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워싱턴



캐나다 오타와



영국 런던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신운>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첫막을 올렸다.

지난 4월 26일 저녁 《신운》 예술단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첫막을 올렸다. 공연이 끝난 후 각계 정치인사들과 사회명류인사들은 신운예술단의 공연을 찬미했다.



난리시장 피드-파본드선생(외쪽 사진)은 《음악과 무용의 배합은 아주 완미하여 하나로 융합된 것 같습니다. 색채와 무용은 모두 아름답습니다.》고 말했다.

중국 복건성에서 이민온 진선생(외쪽 사진)



은 《공연이 아주 잘 되였습니다. 공산당은 파룬궁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공산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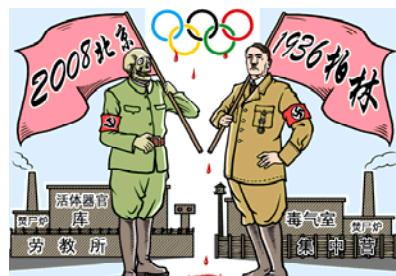
## 백악관앞에서 중공이 올림픽명의를 빌어 박해가 심해짐을 항의



지난 3월 27일 오후, 워싱턴특별구 파룬궁학원들이 백악관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공이 올림픽의 명의를 빌어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심해짐을 항의했다. (왼쪽 사진)

## 2008년 올림픽과 1936년 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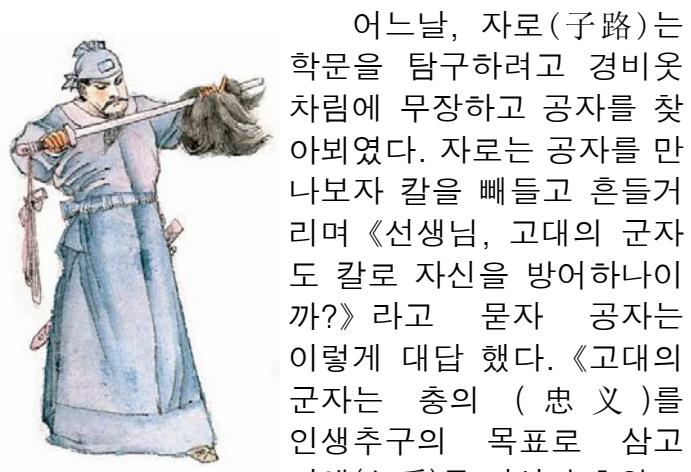


정의의 올림픽에 대한 수치였다.

오늘 중공은 로동교양소, 생체장기저장고, 시체화장터를 리용하여 쩐싼란을 수련하는 파룬궁학원들을 비참히 박해하고 있다. 중공은 2008년 북경올림픽 주최권을 얻었다. 중공이 올림픽을 정치화하여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성한 올림픽에 대한 또 한차례의 치욕이다.

## <군자는 칼로 자신을 방어하는가?>

공자(孔子)는 춘추시기 로나라 사람으로서 중국력사상 위대한 교육가, 정치가, 사상가이다



어느날, 자로(子路)는 학문을 탐구하려고 경비옷 차림에 무장하고 공자를 찾아뵈었다. 자로는 공자를 만나보자 칼을 빼들고 훈들거리며 《선생님, 고대의 군자도 칼로 자신을 방어하나이까?》라고 물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 했다. 《고대의 군자는 충의(忠義)를 인생주구의 목표로 삼고 인애(仁愛)를 자신의 호위로

삼았으며 집을 나서지 않아도 천리밖의 대사를 알았도다. 선(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충신(忠信)으로 그를 감화시켰으며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인의(仁義)로 그들을 안정시켰도다. 하오니 어찌 칼을 들고 무력을 사용할수 있겠는가?》

공자의 말을 듣고난 자로는 탄복해서 말했다 《아, 저는 오늘 처음 이런 보귀한 말씀을 듣게 되였나이다. 전 오늘부터 선생님을 공경하며 성실히 배우겠나이다.》 공자는 이렇게 자로에게 배움의 첫시작부터 인의의 종자를 심어주었다.

## 지혜로운 당송의 뿌리

유람객들은 거인마냥 하늘높이 치솟은 당송을 바라보며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다. 관광안내원은 《캘리포니아의 당송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인데 제일 큰 것은 90 메터나 됩니다.》라고 소개했다. 한 유람객이 《이렇게 높이 자란 당송의 뿌리는 매우 깊겠지요?》하고 묻는 말에 안내원은 대답했다.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당송은 뿌리가 열은 식물입니다.》 《그럼 광풍이 몰아치면 뿌리가 쉽게 뽑힐 것이 아닙니까?》 《여기엔 오묘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싶이 캘리포니아 당송은 무리쳐 자라나 숲을 이루었습니다. 땅밑의 뿌리는 서로 한데 엉겨져 ‘뿌리그물’을 이루었는데 어떤 것은 1000 경(한경은 100 무임)이나 됩니다. 큰 광풍이 휘몰아쳐도 뿌리그물을 친 전체 땅껍질을 통채로 뒤집어놓지 못한다면 한그루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람객들은 이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